

# 시의회 열린도서관

|      |                                |
|------|--------------------------------|
| 용도   | 시민활용시설(도서관)                    |
| 시행기관 | 당진시의회                          |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1로 의회사무국 2층홀        |
| 규모   | 중목구조 인테리어                      |
| 면적   | 연면적 196.81㎡ (인테리어 면적)          |
| 총사업비 | 2억 8천만원                        |
| 설계기간 | 2019.08.-2019.11.              |
| 시공기간 | 2019.11.-2020.02.              |
| 설계   | (주)유타건축사사무소 + 오후건축사사무소         |
| 시공   | 현대일호산업(주)                      |
| 감리   | (주)유타건축사사무소_김창균 + 오후건축사사무소_노서영 |
| 수상   | 2020 대한민국 목조건축대전 최우수상          |

책은  
한 권 한 권이  
하나의  
세계다.

-윌리엄 워즈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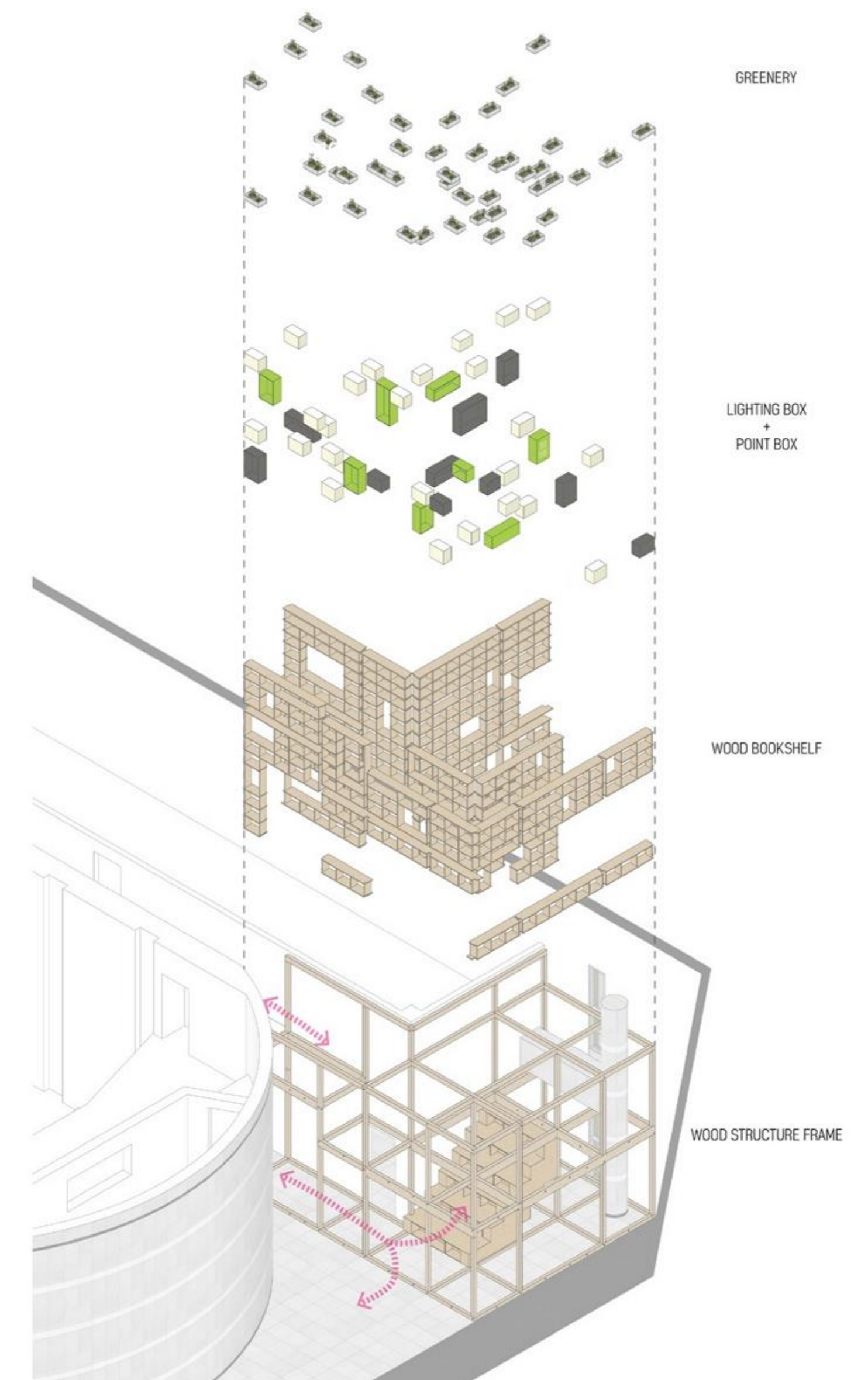


## 조성과정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시민생활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살피고 시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막상 시민들이 가까이 하기엔 쉽지 않은 장소이기도 하다.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는 목표 아래 당진시의회는 의회청사 공간 일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2019년 초 1층 로비 공간 일부와 의회사무국장 집무실을 축소하여 어린이 북카페를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사용자인 어린이를 고려하지 못한 공간계획에 활용도가 높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는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열린도서관의 계획에 앞서 당진시 공공건축팀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다. 기조성된 1층 로비공간을 포함한 열린도서관의 위치선정 그리고 기존시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열린도서관 조성은 무엇보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필요로 하였고, 당진시 공공건축팀은 ‘소규모 공공건축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였다. 공공건축가는 기존시설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의정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의회 건물의 구조와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중목구조 방식을 제안하여 약 2달여간의 시공기간을 거쳐 열린도서관을 완공하였다.

## 설계개념

설계자는 공간활용의 극대화 및 입체적 공간체험을 중요한 설계개념으로 삼았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바닥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의회 홀의 높은 천장고를 활용하여 양쪽 복도를 복층으로 계획하고 3층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부족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극복을 위해 사전제작, 현장조립 방식의 프리컷팅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해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책을 읽는 공간은 다채로운 책과 식물의 배경이 되도록 심플한 구조의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여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였다.







열린도서관 조성 전과 후 시  
의회 홀의 쓰임은 완전히 달라  
졌다. 아무도 찾지 않던 시의  
회의 자투리 공간은 시민 모두  
가 즐기며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 기존 시의회 홀의 벽체와 구조체 기둥을 통해 새로 조성된 열린 도서관의 활용 변화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